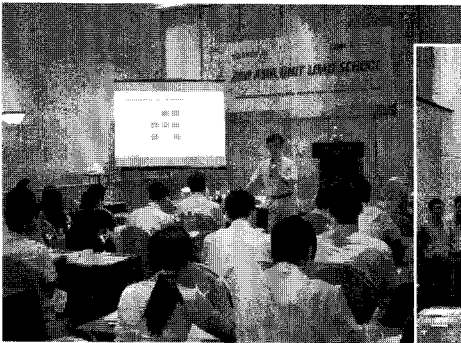


[협회소식]

◆ 아시아 공동물류 시대, 한국이 앞당긴다.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지원하고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주최한 제2차 '아시아 유닛로드(Unit Load System) 스쿨'이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돼 아시아 물류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6월 1차 태국 방콕 단기 연수교육에 이어 2차로 개설된 이번 교육에는 베트남 정부의 표준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4명을 포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국가 관계자 32명이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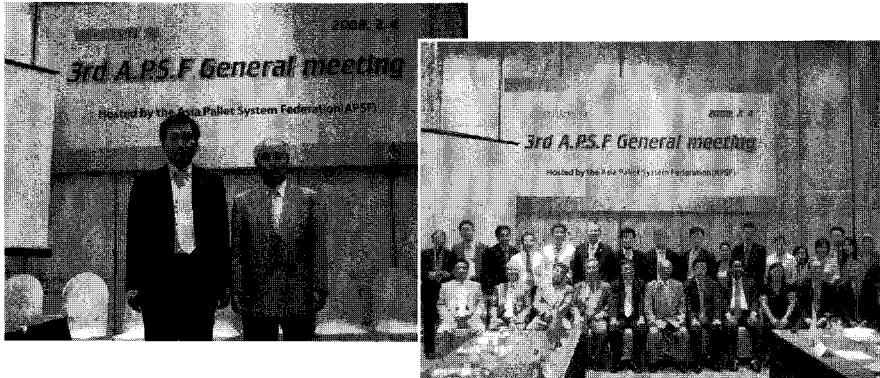
이 교육은 물류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유닛로드시스템에 대한 기초 지식과 파렛트·컨테이너 표준화를 통한 유닛로드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한 단기교육 과정이다.

엄재균 한국파렛트컨테이너기술연구소장(명지전문대학 교수)의 강의로 이루어진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 물류표준화의 역사와 발전과정, 아시아 물류표준화 현황과 추진 과제, 유닛로드시스템 구축 기초실무 등으로 이루어져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박은규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상근 부회장은 "아시아의 물류표준화는 인재양성이 관건"이라면서 "아시아 유닛로드 스쿨 개설 등 보다 동남아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물류표준화 교육은 아시아의 물류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병륜 회장 APSF의 2대회장으로 취임



서병륜 회장은 지난 7월 4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APSF 정기총회에서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의 제2대 회장에 당선 되었다.

APSF는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를 통한 아시아 종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시아 역내 물류 표준화와 공동화 등 물류 효율화를 실현, 후진적인 아시아 물류를 선진화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역내 무역증진, 환경보호, 자원절약 등 1석 5조의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아시아 민간 물류단체로서 현재 정회원 :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옵서버 : 베트남, 인도네시아, 8개국으로 앞으로 인도, 싱가포르 등의 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APSF는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KPCA)가 2003년부터 주도하여 2006년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성과로는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규격 제정, 아시아 TC/51 소위원회 구성, 중국 정부가 APSF 규격을 자국 국가 규격으로 채택 (2008.3.1), 아세안 국가의 표준품질 담당 기관의 핵심인사들에 대한 1,2차 (2007년~2008년)아시아 유닛로드 스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80여명의 연수교육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앞으로 이 수료생들은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핵심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5월 17일 일본의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한·중·일 3개국 물류장관 회의에서 「동북아 물류협력을 위한 오카야마 선언」공동 성명이 채택되었다. 그 주요 내용 중 물류장비 표준화 부문의 실천과제에 있어 「APSF(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가 설립되어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은 1,100mm×1,100mm을 아시아 지역 기본 표준파렛트 규격으로 합의하였다. 3국은 동북아에서의 기본 표준 파렛트 규격 사용을 확산시키려는 전문가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명시된 바 제2대 서병륜 회장이 리드하는 APSF가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추진을 본 궤도에 진입하게 할 것으로 아시아 물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자형 파렛트 국제표준, 한국이 주도**
 한국표준, ISO 초안으로 채택, 임재균 위원장 선임



우리나라 표준파렛트인 T-11형(1,100mm×1,100mm) 파렛트가 아시아태평양지역 표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국가표준 상자형 파렛트도 국제표준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자형 파렛트의 국제표준화 작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 표준 상자형 파렛트가 물류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ISO(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 초안으로 채택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상자형파렛트는 다양한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입체구조의 파렛트로 최근 유통업과 택배업의 발전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물류용기다.

특히 이번에 초안이 채택된 상자형 파렛트의 국제표준 지정 작업을 주도하게 될 작업반의 위원장에 한국파렛트컨테이너기술연구소의 임재균 소장이 선임됨으로써 상자형 파렛트의 국제표준화에 한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표준원 윤종구 에너지물류표준과장은 "ISO의 유닛로드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파렛트 기술위원회(ISO TC51)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형태의 파렛트 규격을 다루게 될 작업반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임재균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임 교수가 맡게 될 신규 작업반은 ISO TC51 WG8 Pallets with superstructure이다.

기술표준원 측은 기존의 평파렛트를 위주로 한 유닛로드시스템에서는 농수산물, 청과, 기계부품산업 분야의 물류표준화에 속도가 불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표준 상자형 파렛트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평파렛트와 상자형 파렛트가 연계된 '아시아 물류 pool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